

잠든 제국이 각성을 꿈꿀 때

[서평] 차태근(2021), 『제국주의 담론과 동아시아 근대성: 현대 중국의 정치적 무의식을 찾아서』, 소명출판, 521쪽.

김 은 영*

1. 근대 전환기 중국과 반(反)제국의 역설

‘반(反)제국’은 ‘반(反)봉건’과 함께, 소위 ‘굴욕의 세기’ 동안 중국의 구망(救亡) 담론 및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 가운데 하나였다. 한 세기를 휩쓴 반제국의 목소리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굴욕’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글로벌한 냉전구조 및 소련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의 반제국은 ‘사회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반제국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자취를 감추기느커녕, 오히려 미국과의 ‘신 냉전’ 과정에서 한층 강화된 ‘애국주의’의 형태로 부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일련의 역사적 과정은, 중국이 근대 국가—혹은,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근대 제국’—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 스탠포드대 박사

가는 데 있어 반제국, 즉 당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부정과 저항이 그 근간이 되었음을, 다시 말해 중국은 스스로를 기존 근대 제국/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구성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근대 전환기로 돌아가 보면, 제국/주의와 중국의 관계가 생각만큼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근대라는 것이 당시 중국에서 미증유의 어떤 것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에게 근대에 대한 이해와 상상은 불가피하게도 당시 이미 국민국가를 넘어 제국으로 도약하고자 상호경쟁 중이었던 서구 열강 및 일본이라는 대타자와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소위 ‘저항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시, 결국에는 그러한 대타자를 향한 질문 (“Che Vuoi?”)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의 근대로의 전환과 이를 뒷받침한 국민(성)·국가 담론은 제국주의적 대타자의 언어와 욕망을 자발적으로 내재화한 결과라는 아이러니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그러한 아이러니를 은폐하거나 망각함으로써만이 반제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의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환기 중국의 가장 지독한 역설이라 할 만하다.

차태근의 『제국주의 담론과 동아시아 근대성: 현대 중국의 정치적 무의식을 찾아서』는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그러한 역설을, 중국은 물론 일본과 서구의 방대한 문헌에 대한 정밀한 읽기를 통해 섬세하게 풀어내고 있는 역작이다. 이 역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전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의 연구 대상 및 범위와도 겹친다는 점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우선 현대중국 사상의 원형은 제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담론과 현실 두 영역 모두에서 정점에 달했던 “1898년 말부터 1910년 전후시기에 형성”(p. 19)되었다. 둘째로, 근대 전환기 중국이 처했던

역설적 상황의 핵심에는 제국주의 담론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제국주의론은 민족주의와 진화론, 문명론 등 통시적 차원의 일반론에 머물렀던 연관(메타)담론에 시대적 구체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며 궁극의 메타담론으로 기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자발적으로 내면화한 제국주의의 언어와 욕망은 의식적 차원에서의 “피식민자로서의 자기 인식으로 인해”(p. 20) 무의식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전제 아래, 저자는 20세기 초에 일본을 거쳐 소개된 서구, 특히 영국과 미국의 제국주의 담론이 어떻게 ‘무의식’의 형태로 중국의 근대적 자‘의식’에 침투했는지를 추적하는 동시에, 그것과 오늘날 중국의 ‘근대적 제국의식’ 사이의 관계까지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2. ‘번역’된 제국의 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담론과 관련된 중국과 일본, 서구의 문헌에 대한 정독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와 당시 중국 사상계의 무의식적 공모 관계를 세밀하게 고증해낸 데에 있다. 예컨대 1장과 2장은 글로브-지구와 만국공법으로 표상되는 포스트-천하의 세계질서를 배경으로, 라인슈(Paul S. Reinsch)의 『동방상황의 영향 하에서의 19세기 말 세계정치』와 기딩스(Franklin H. Giddings)의 『평민주의와 제국주의』 등 영미권의 제국주의 담론이 일본에서 긍정적으로 전유된 이후 량치차오(梁啟超) 사상의 토대를 형성하게 된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3장과 4장은 중국 분할 문제를 둘러싼 외국인의 중국 인식이 중국인의 자아인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량치차오의 「신민설」이 인종론과 문명론에 근거하여 앵글로색슨 민족을 이상적인 ‘신민’의 모델로 제시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서구와 일본, 중국을 가로지르는 세

기 전환기 제국주의 담론의 글로벌한 팽창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책이 서구의 제국주의 담론을 내면화한 중국의 자아비판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장과 6장에서, 저자는 제국주의론에 내포된 문명론이 중국의 분발을 촉구하고 식민 제국의 욕망을 일깨우는 과정도 함께 그려내고 있다. “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그 사회의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간주”(p. 300)됨에 따라, 중국 지식인들이 문명의 지위를 얻기 위해 여성의 권리를 옹호했던 것이나, “만주족을 야만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한족이 “지배자에 대한 문명적 우월감을 만회하고자 하였”(p. 305)던 것, 량치차오가 장건(張騫), 반초(班超), 정화(鄭和) 등 잊혀진 ‘식민 영웅’을 부활시킨 것과, 강유웨이(康有爲)가 식민지 개척을 꿈꾸고 약소민족의 “불가피한” 병합과 희생을 전제로 대동사회를 구상했던 것은 모두 근대 제국을 향한 중국의 은밀하지만 강렬한 욕망을 보여준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자가 지적했듯이 그러한 욕망이 “신중국의 수립”을 향한 욕망일 뿐 아니라 “옛 고토”의 회복(p. 358), 나아가 과거의 영광을 향한 욕망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근대 제국으로서의 중국의 꿈이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 담론을 통해 근대 제국의 꿈으로 번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너무도 다른 두 제국 사이에서, 제국의 꿈은 결코 매끄럽게 번역되지만은 않았다. 예컨대 제국주의 담론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전, 청조와 제국주의 열강은 난징조약 등 초기의 근대적 조약에 대해 동상이몽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청조의 입장에서, 그것은 반항적인 이민족을 회유하여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기미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관점에서 그것은 문명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민족이 응당 감수해야 하는 불평등한 조약이었던 것이다(1장). 량치차오의 경우, ‘민족제국주의’를 시대적 대세로 보는 라인슈의 입장에서부터 영향을 받아 전근대 제국과 근대 제국의 꿈 사이에

민족국가 확립이라는 과도적 단계를 설정하기도 했는데(2장·3장), 이는 근대 전환기 중국의 민족주의가 단순히 국민국가 수립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혹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제국 의식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1장).

‘제국의 꿈’은 7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면-각성론’과 ‘잠자는 사자’라는 민족우언과 만나 더욱 의미심장한 메타포로 변모한다. 각각 꿈꿀 수 있는 조건과 꿈을 이루기 위한 조건에 상응하는 ‘수면’과 ‘각성’은 그 자체로 긴장관계를 이루는 개념이지만, 근대 전환기 중국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더 복잡해 보인다. 중국의 선택은 잠에서 깨어나는 쪽이라기보다는 깨어나는 꿈을 꾸는 쪽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각성이 예정된 존재로서의 ‘잠자는 사자’에게 각성은 현실의 당면 과제가 아닌 꿈의 주어진 결말에 불과할 뿐이다.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잠자는 사자’는 각성을 꿈꿀지언정 절대 진짜로 깨어나서는 안 되었다. 그런 이유로, ‘수면-각성론’과 ‘잠자는 사자’라는 민족우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것이 중국 경계론 혹은 중국 위협론으로 구체화되었던 “서구의 대중국 콤플렉스”와 “중국의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기억”(p. 404)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아닌, “각성된 중국이 세계에 미칠 위협에 대한 자기변호”(p. 416)까지 미리 준비할 정도로 중국은 ‘제국의 꿈’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바로 그러한 제국의 꿈이야말로 “량치차오가 기꺼이 수면론을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전제”(p. 400)였다.

‘수면-각성론’에서 질문의 형태로 제기되는 데 그쳤던 ‘깨어난 이후’ 중국의 모습은, 20세기 초 중국의 미래소설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된다. 8장은 량치차오의 「신중국미래기」를 비롯한 당시의 대표적 미래소설 작품들이 그려내고 있는 신중국의 모습을 집중 조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 작품에 묘사된 신중국은 “서구를 모방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극복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 서구의 패권을 넘어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p. 472) 다시 말해, 중국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위계가 미래소설에 이르러 상상적으로나마 전도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 대한 반복적 야만화는 그러한 상상적 전도를 위한 중요한 서사적 도구였다. 주목할 점은, 서구에 대한 야만화는 서구가 “다른 타자를 야만으로 간주했”던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닌, “‘야만’을 야만적으로 대하는 방식”(p. 454)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이다. 문명과 야만의 위계질서는 인정하되 야만을 서구처럼 ‘희생’시키기보다는 ‘문명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저자도 지적했듯이 화이론적 사고의 흔적이 느껴진다. 이와 관련해, 미래소설 속 신중국이 “조화와 통합을 중시하는”(p. 473) 중국의 전통적 이념 아래 입헌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제국 중국이 중심이 된 현대판 천하세계”(p. 474)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저자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21세기 중국에 관한 논의로 전환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9장에서, 저자는 21세기의 중국을 바라보는 양극단의 입장, 즉 “중국 역할론을 내세우는 중국몽과 중국 위협론” 모두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중국”(p. 496)을 상상할 것을 촉구한다. 앞 장의 논의들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제국 중국이 중심이 된 현대판 천하세계”를 꿈꾸는 중국몽과 중국이 자신을 ‘잠자는 사자’와 동일시하도록 하는 데 일조한 서구의 중국 위협론은 사실상 근대 전환기 제국주의 담론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두 개의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표면적) 양극단을 지양하기 위한 실천 역시, 제국주의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깨어난 사자’가 아닌 ‘깨어난 인간’이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주즈신(朱執信)이 1919년 제시한 ‘깨어난 인간’의 모티프를 상기시키며 현대 중

국의 정치적 무의식을 찾아 떠난 500여 페이지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3. 또 다른 무의식: ‘각성한 노예’의 경우

이 책의 마지막 장은 ‘깨어난 인간’이라는 실천적 과제를 던지는 동시에, ‘왜 근대 전환기 제국주의인가?’라는, 이 책이 대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주목할 만하다. “현대중국의 제국적 성격이 19세기 서구의 제국주의의 압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현대중국의 제국적 성격에는 제국주의적 성격이 침윤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저자는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을 인용하며 “국민국가의 연장으로서의 제국은 종래의 ‘제국’이 아니라 ‘제국주의’”(pp. 494-495)라는 즉답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저자의 연구가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이 책은 제국주의를 철저히 타자화한 채, 혹은 반제국을 기본 전제로 둔 채, 현대중국의 제국의식의 기원을 전근대적인 중국 제국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에 대한 도전인 셈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성은 제국주의가의 의식적인 반제국에 밀려 근대 전환기 중국의 의식 아래로 가라앉아버린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는 바로 그 무의식을 들춰냄으로써 현대중국의 제국의식의 기저를 이루는 제국주의를 해부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해부의 결과도 매우 성공적이다.

하지만 저자의 답변은, 근대 전환기 제국주의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이 현대중국의 제국적 성격에 대한 논의로부터 소급하여 추출된 것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근대 전환기의 제국주의 담론이

중국의 현대적 제국주의의 틀 안에서 협소하게 규정되어버리고, 그렇게 협소하게 규정된 제국주의 담론이 현대적 제국주의식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정치적 무의식과 동일시된다면, 이는 순환논리의 오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실제로 이 책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근대 전환기 중국의 제국주의 담론은 주로 1898년에서 1910년 사이 Kang Wei와 량치차오로 대표되는 입헌파에 의해 제기된 것들로, 시대적·정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제한적이며, 말 그대로 ‘우연치 않게’ 현대중국의 제국주의와 공명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이 입헌파의 제국주의론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류스페이(劉師培)나 장타이엔(章太炎) 등 제국주의에 비판적이었던 지식인들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는다. 저자도 지적하듯이, 그들은 “피억압 민족의 시각에서 [제국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반제국주의 연대 활동을 전개”(p. 219)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저자의 논의는 곧바로 당시 중국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담론 일반이 지니고 있던 내재적 한계로 넘어간다. “그러나 20세기 초 중국의 사상적 측면에서 보면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오히려 서구 열강의 부강의 비밀을 배워서 제국주의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p. 219) 사실의 차원에서, 그러한 한계를 반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는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시기는 어떠했는가? 이 질문은 왜 유독 20세기 초반 10년의 제국주의 담론, 그중에서도 입헌파의 담론이 현대중국의 정치적 무의식에 살아남아 현대중국의 제국주의식으로 이어진 것인지, 바꿔 말하면, 혁명파나 그 이후의 지식인들, 예컨대 5·4 지식인들이나 좌익 지식인 등의 (반)제국주의 담론은—무의식에서도 자리를 찾지 못했다면—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제국주의 극복을 명분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내면화를 정당화하는 바

로 그 모순을 정면으로 겨냥했는데, 루쉰(魯迅)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을 듯하다.

저자가 9장의 서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루쉰의 「황화」는, ‘각성한 제국의 꿈’에 대한 그의 비관적인 태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가 보기에, 여전히 ‘잠자는 사자’인 중국은 설령 깨어난다 하더라도 “서커스단의 사자처럼 주인을 위해 무대에서 연기”(p. 478)를 하는 비참한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비관주의는 「황화」가 발표되었던 1933년보다 훨씬 이른 1922년, 현대중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수면-각성’ 모티프라 할 수 있는 ‘철방의 비유’를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부술 수 없는 철방 안에서 홀로 깨어난 자는 잠든 자들에게 공연히 각성의 고통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들을 깨우기를 주저한다. 깨어나서도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의 깨어남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뿐이라는 루쉰의 ‘각성’은, 바로 그 고통으로 인해 ‘각성의 꿈’이 아닌 진짜 ‘각성’이었다. 제국주의의 바깥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당시에, 그는 그 안에서 제국의 꿈—혹은 제국 너머의 꿈—을 꾸며 잠들어 있는 대신 가장 고통스러운 길, 즉 꿈꾸기/잠들기에 저항하는 ‘각성한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한다.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에서, 일본의 근대와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중국 근대의 핵심을 ‘각성한 노예’ 루쉰의 잠들지 않기 위한 저항정신에서 찾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가 일본 근대성의 특징으로 꼽은 요소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책에서 현대중국의 정치적 무의식의 구성 요소로 언급된 것들—제국주의에 대한 내면화, 제국에 대한 동일시, 제국/주의에 대한 초극의 욕망 등—과 겹친다. 일차적으로 이는 현대중국의 정치적 무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제시된 20세기 초 입헌파의 제국주의 담론이 일본의 제국주의론 및 일본을 통해 소개된 서구의 제국주의론에 크게 빚지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근대

전환기 일본과 중국의 사상계(특히 입헌파)가 만국공법 체제 하의 글로벌-지구 안에서 자신들의 민족/국가가 처한 존재론적 문제에 접근했던 방식이 매우 유사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저자가 반복해서 지적하듯이, 중국은 만국공법 체제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법 밖의 예외적인 상황에 처해”(p. 83) 있었다.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근대화, 나아가 제국주의화를 통해 재빨리 ‘명예’ 서구가 됨으로써 공법 체계 안으로 포함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20세기 초 중국의 선택도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선택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중국은 자신의 ‘예외성’을 뱀티지 포인트(vantage point) 삼아 만국공법 체계 그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만국공법 체계 혹은 제국주의의 ‘바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러한 중국의 전환 혹은 ‘회심’을 다케우치는 ‘각성한 노예’ 루신의 저항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 같은 다케우치의 관점에서 보면, ‘노예’를 타자 삼아 민(民)을 근대적 제국의 ‘국민’으로 개조하고자 했던 근대 전환기 중국 지식인들의 기획이 지닌 역설적 노예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이 그 역설적 노예성을 의식하지 못한 채 추진했던 ‘국민’ 만들기 혹은 ‘국민성 개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나 성공 여부는—비록 9장의 도입부에서 루신의 문장을 통해 암시되고 있기는 하지만—이 책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들이 다루어지리라 기대했던 4장(“제국의 교사와 국민의 모델”)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는 이 책이 제국주의 ‘담론’ 분석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명백한 한계임이 분명하다. (소수) 지식인들의 제국주의 담론이 그 목표 대상인 민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무의식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누락됨으로 인해 현대중국의 제국주의적 무의식이 정확히 누구의 무의식인지, 그 무의식은 21세기 중국의 제국의식으로

다시 떠오를 때까지 어떻게 한 세기 동안 유지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다른 무의식의 틈입은 없었는지와 같은 중요한 질문들이 함께 누락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20세기 초반과 21세기 초반 사이의 백년의 시간 동안, 제국주의 담론이 다른 담론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정치적 무의식의 형태로 중국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때, 현대중국의 제국의식의 기원을 근대 제국주의에서 찾는 이 책의 기획이 훨씬 더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5년여의 긴 연구의 여정을 마치고 이 책의 출간과 함께 한숨 돌리고 있을 저자에게는 매우 송구한 부탁이나, 이 책만큼 매력적이고 감탄스러운 후속 저작을 통해 그러한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도 조만간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